

Market Index / 7일

코스피지수 ▲ 2492.10 +3.46	코스닥지수 ▲ 718.29 +0.33	유가(WTI, 달러) ▼ 73.56 -0.40	환율(원)	1USD 1475.27 100¥ 936.41	팔매 1424.53 904.21	1EUR 1539.89 1CNY 207.50	팔매 1479.81 187.74
--------------------------	-------------------------	------------------------------	-------	-----------------------------	----------------------	-----------------------------	----------------------

노지온주·월동채소류 가격 ‘좋다 좋아’

감귤 경락가 5kg에 1만7000원... 값 좋았던 작년보다 ↑ 당근과 월동무 가격도 지난해보다 2.6~3배 높게 형성

출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노지 온주에 이어 출하 초기인 월동채소류 가격도 강세를 띠고 있다.

7일 제주농협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2024년산 노지온주의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은 5kg에 1만6950원이다. 가격이 전례 없이 좋았던 전년 이맘때 1만5000원 안팎보다 높고, 앞서 12월 한 달 평균가격(1만3670원)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가격 강세는 생산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노지온주는 현재까지 제주도 관측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생산예상량(40만8300t)의 72.9%인 29만7682t이 출하된 상태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초 농업관측조사에서 노지온주 생산예상량을 37만8000t으로 예상했다.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업디지털센터에도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 3차 관측조사 결과 9월 발표치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역대 노지온주 생산량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23년(40만5885t)이다.

제주 월동채소류 가격도 대부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당근, 양배추, 양파 등은 재배면적이 증가해 자율적 면적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가격이 좋은 상태다.

이달 7일까지 당근의 서울가락시장 평균 경락가격은 20kg에 5만2430원으로 지난해 이맘때 1만8000~2만원에 견줘 2.6배 정도 높다. 월동무는 20kg에 2만662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던 지난해 8000~9000원 대비 3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양배추는 8kg에 1만1520원으로, 4000원 안팎이던 지난해 이맘때의 2.8배 수준이다. 브로콜리도 8kg에 3만890원으로 지난해 1만6000~2만원에 견줘 상당히

비싸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관계자는 “현재 월동채소류의 약 10~20%정도가 출하됐는데, 상품 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상태”라며 “2월쯤엔 당근, 월동무 등 재배면적이 증가한 품목은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월동무 재배면적을 5097ha로 평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근은 1300ha, 양배추는 1784ha로 평년 대비 각각 10.9%, 5.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브로콜리는 평년 대비 7.1% 감소한 1180ha로 전망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콜라비 밭 물주기 7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농경지에서 수확을 앞둔 콜라비에 스프링쿨러를 이용해 물을 주고 있다. 강희만 기자

제주 휘발유 4개월여 만에 1700원대 진입

휘발유 1740원·경유 1597원 하루 사이 30원 이상 ‘껑충’

제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4개월여 만에 1700원대에 진입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당분간 기름값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740원으로, 전날보다 37원 올랐다.

도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월 1701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8월 19일(1715원) 이후 4개월여 만에 1700원대에 다시 진입했다.

이날 기준으로 제주는 전국에서 서울(1747원) 다음으로 비쌌고, 전국 평균 가격(1687원)보다 53원 높았다. 최저가는 1669원, 최고가는 1980원이다.

경유 판매가격도 전날보다 36원

오른 리터당 1597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는 전국에서 서울(1609원) 다음으로 비쌌고, 전국 평균 가격(1534원)보다 63원 높았다. 최저가는 1527원, 최고가는 1930원이다.

이처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어서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1월 첫째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5달러 상승한 배럴당 75.5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도 전주보다 1.5달러 오른 82.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2.3달러 오른 91.6달러였다.

보통 국제유가 등락은 2~3주 정도 차이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최근 흐름에 따라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대한석유협회는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2월말까지 연장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15%) 인하된 698원, 경유는 리터당 133원(23%) 내린 448원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성장 가능성 높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수출바우처·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광주·전남청)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사업(1차)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정부지원금(보조금)과 기업분담금(자부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 발급액 내에서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비 지원 등 14가지 서비스 메뉴판 중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2024년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정해 20여 개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해외진출 지원사

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하는 제도다. 수출 실적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선정하며, 글로벌 강소 및 글로벌강소+단계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기업의 지역 소재지별 광역지자체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광주·전남청은 이달 17일(오후 2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2025년 수출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2025년 제주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 시책 합동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기관별 올해 주요 수출지원 시책 설명과 함께 예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도 배포할 예정이다.

수출에 관심 있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은 광주·전남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이달 16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순 80명을 우선 모집하고 당일 현장 접수도 받는다. 문의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문미숙기자

제주시, 대형 폐기물 배출 앱 시범 운영

제주시는 대형 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폐기’(사진)를 도입해 오는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폐기’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에서 운송,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앱으로 배출할 품목을 선택하고 사진과 함께 배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입력해 대형 폐기물 수수료 금액을 결제하면 배출 신청이 마무리된다.

특히 장롱, 소파 등 무거운 대형 폐기물도 ‘내려드림’ 서비스를 신청해 수수료를 부담하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해 준다. 또한 중고 물품을 매매할 수 있고 최저 거래 시



에는 ‘폐기’ 앱에서 지원하는 제주 자원순환리워드(최대 5000원)를 지급한다.

제주시는 “스마트폰 앱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이 편리해지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 ‘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듦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톤·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064)725-0993